

기획조사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gola



요 약

- 앙골라는 2002년 4월 내전 종식 이후 재건특수,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이 급증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임.
- 사하라 이남 제2의 산유국(일산 120만 배럴)으로 원유산업은 앙골라 GDP의 54%, 정부 재정수입의 78%, 수출액의 90%를 차지하며, 생산량 기준 세계4위(연산 642만 캐럿)인 다이아몬드산업 역시 앙골라의 주요산업 중 하나임.
- 고유가 기조에 따라 2007년까지 앙골라 수출액은 연평균 28%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며,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힘입어 수입수요 역시 2008년에는 2004년의 2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 두자리 수 이상의 빠른 경제성장세와 앙골라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노력,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전후복구사업은 앙골라 경제성장의 기회요인이 될 것임.
- 반면 앙골라 경제의 높은 원유의존도, 국민 대다수의 절대빈곤 및 부족한 인적자원,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 등은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우리나라는 앙골라의 풍부한 원유자원 확보와 전후 재건사업에 따른 사회인프라 복구사업 참여 부문에서 앙골라와의 경제협력이 유망하며, 이들 부문에 정부와 기업의 높은 관심이 요구됨.

목 차

1. 국가개관	1
2. 경제동향	3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주요산업 동향	
다. 주요자원 현황	
라. 교역 동향	
마.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3. 성장잠재력 평가	21
가. 기회요인	
나. 제약요인	
4. 한-앙골라 경제협력 확대방안	24
가. 한-앙골라 교역동향	
나. 한-앙골라 투자동향	
다. 경제협력 유망분야 및 확대방안	

1. 국가개관

□ 개요 : 내전 종식 후 경이적인 경제성장세 지속

-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앙골라는 지난 2002년 내전 종료 이후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성장유망 국가
- 앙골라는 1975년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으나, 얼마 후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인해 2002년까지 27년 동안의 오랜 내전을 겪은 바 있음.
- 2002년 4월 내전종식 후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재건에 박차를 기하면서, 현재 두 자리대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일반사항

- 국명 : 앙골라(Republic of Angola/Republica de Angola)
- 위치 : 아프리카 남서부
- 면적 : 1,246,700km²(한반도의 약 5.5배)
- 기후 : 열대기후(북부), 아열대기후(남부)
- 수도 : 루안다(Luanda)
- 인구 : 1,510만명(2003년 UN 추정치)
- 인종 : Ovimbundu(37%), Kimbubdu(25%)
Bakongo(13%), 혼혈(2%), 기타(23%)
- 언어 : 포르투갈語(공용어), Umbundu語, Kimbundu語 등 다수
- 종교 : 토착신앙(47%), 카톨릭(38%), 개신교(15%)



□ 정치 상황

- 건국일 : 1975. 11. 11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 Jose Eduardo Dos Santos 대통령
- 권력구조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권 분립
- 정치상황 : 1992년에 최초로 복수정당제 실시
- 주요정당 : MPLA(집권여당), UNITA(최대 야당)
- 행정구역 : Bengo, Cabinda 등 18개 주로 구성

□ 경제 상황

- 국내총생산(GDP) : 약 240억불(2005년 추정치, IMF)
- 경제성장률 : 15.7%(2005년 추정치, IMF)
- 1인당 국민소득 : 1,873불(2005년 추정치, IMF)
- GDP 구조 : 원유부문(54%), 도소매업(16%), 농수산업(9%), 광산업(5%), 제조업(4%), 건설업(4%), 기타(8%)
- 노동인구 : 558만명(2005년 추정치, CIA)
- 실업률 : 약 50%
- 물가상승률 : 13%(2005년 추정치, IMF)
- 원유생산량 : 일일 약 120만 배럴(2005년 추정치)
- 원유매장량 : 88억 배럴(확인매장량 기준)
- 천연가스 매장량 : 900억 m³(확인매장량 기준)
- 상품수출액 : 174억불(2005년 추정치, IMF)
- 상품수입액 : 86억불(2005년 추정치, IMF)

2.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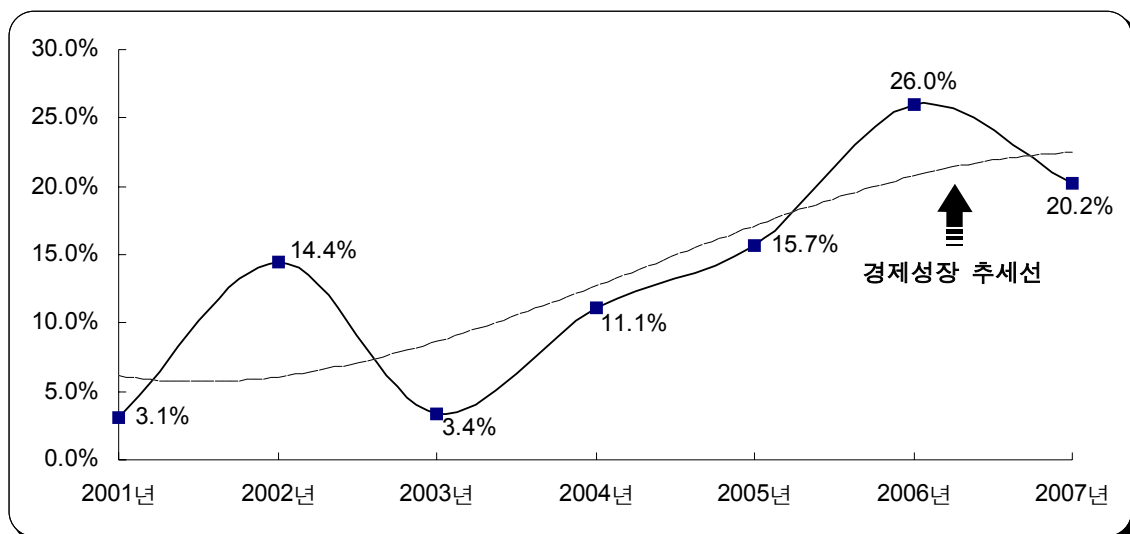
가. 거시경제 동향

□ 경이적인 경제성장세 : 아프리카의 新성장엔진으로 부상

- 2002년 4월 내전 종식(Luena Peace Agreement)이후 재건특수,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급증 등으로 경제가 활기를 띄면서 두 자리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 2005년 앙골라 경제는 15.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20%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전망
-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부문은 앙골라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산업(Oil Insustry)인데, 최근의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음.

※ 2005년 기준, 앙골라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120만배럴 수준으로 추정되며, 2010년 경에는 200만배럴까지 확대될 전망

<앙골라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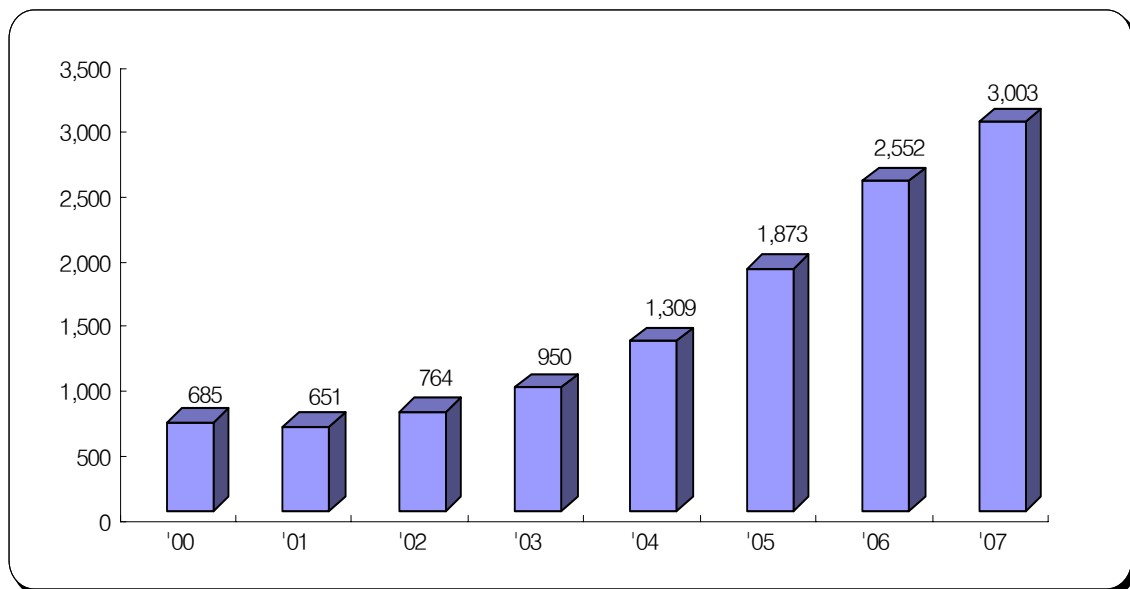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앙골라 국민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현재 앙골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73불로, 불과 3년 전인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현재와 같은 고성장이 지속된다면, 2006년 앙골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불을 넘어설 전망

<앙골라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단위 :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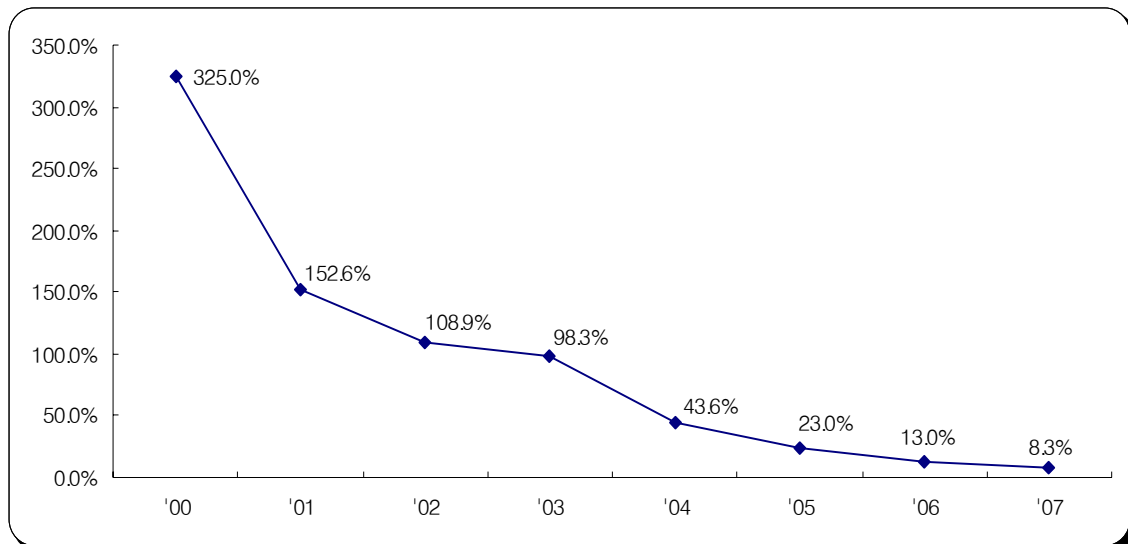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 물가 및 환율 안정

- 급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03. 9월부터 앙골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시경제 안정화정책(Hard-Kwanza Policy)”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거시경제 지표들이 안정세로 진입
- 2003년 이전까지 연간 100%가 넘는 물가상승률이 2003년 이후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2005년에는 23.0%까지 하락

- 앙골라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2006년 앙골라 물가상승률은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2007년에는 8.3%까지 하락하여 완전한 안정세로 진입할 전망**

<앙골라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 앙골라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환율도 안정세로 진입**
- 연평균 70%에 이르렀던 앙골라 통화(Kwanza)의 달러화 대비 평가절하율이 2003년 9월 이후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2004년에는 11%까지 하락**

□ 재정적자 감소와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고유가로 인한 정부수입 증대와 정부보조금 감축, 예산효율성 증대노력 등으로 인해 앙골라의 재정적자 규모 감소 추세
- 2004년 앙골라의 재정적자액은 GDP 대비 4%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흑자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

※ 재정적자 추이(GDP 대비) : 3.6%('01), 9.4%('02), 7.1%('03), 4.0%('04)

- 최근의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앙골라 정부의 재정수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전망

※ OECD에 따르면, 앙골라 정부는 2005년 기준 재정수입의 약 78%를 원유부문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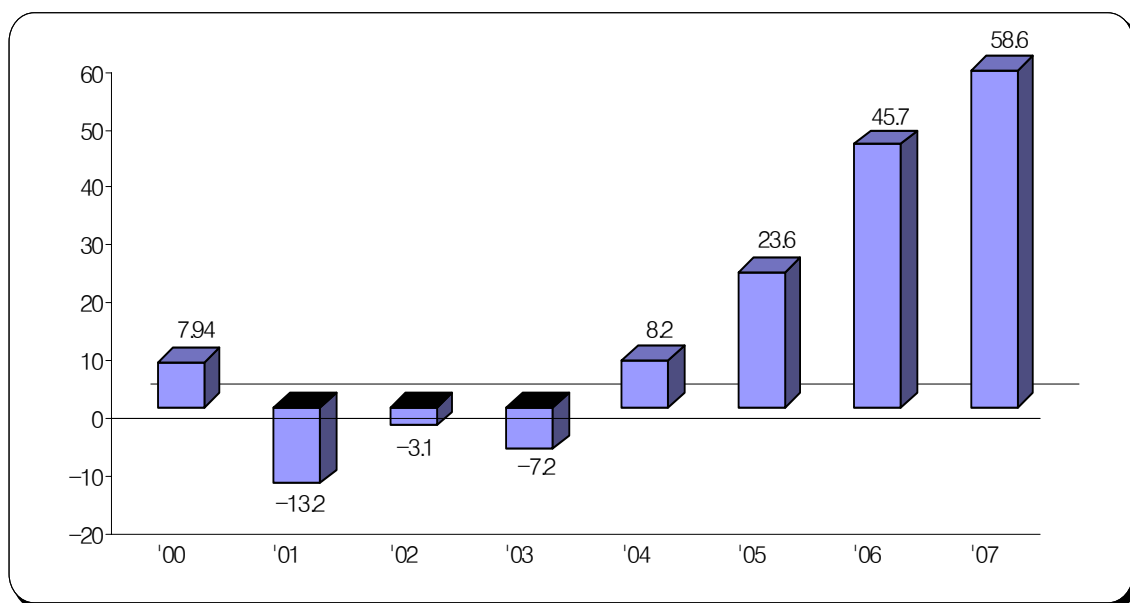
- 2003년부터는 중앙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재정을 통합관리하고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음.

□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

- 2003년도에 7.2억불에 달했던 경상수지 적자가 2004년도에 흑자(8.2억불)로 돌아선 이후 2005년에는 흑자규모가 23.6억불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
- 이처럼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유는 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액 급증 때문으로 분석

<앙골라 경상수지 추이>

(단위 : U\$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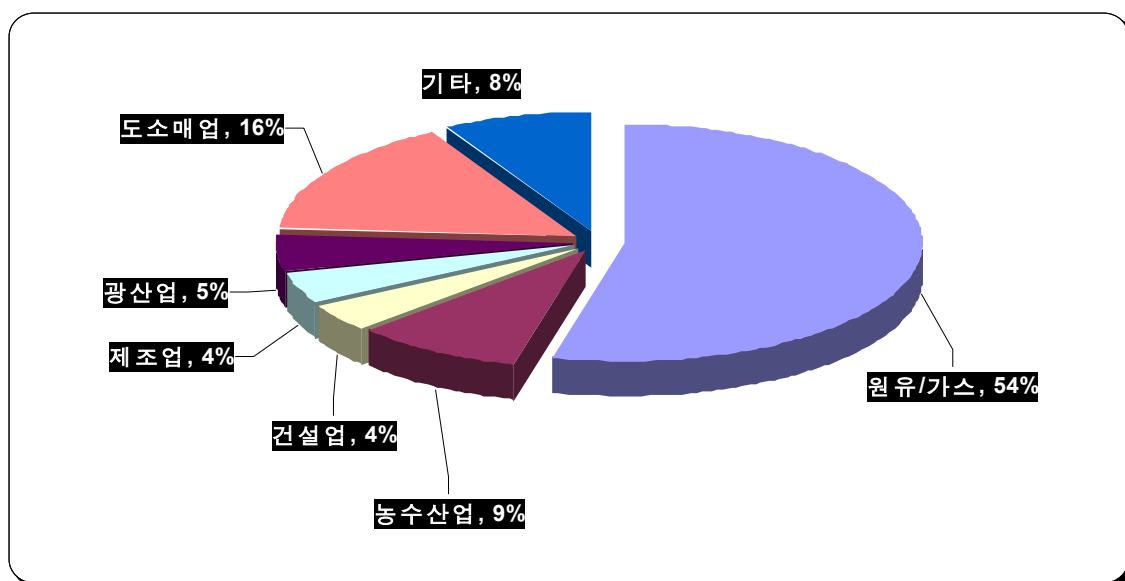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나. 주요산업 동향

□ 산업구조 : 원유부문 비중 50% 이상

- 앙골라는 원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현재 앙골라 원유산업은 앙골라 GDP의 54%를 점유하고 있음.
- 원유산업은 또한 정부 재정수입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측면에서는 앙골라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
- 비원유산업으로는 다이아몬드 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
- 앙골라는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세계시장 점유율 5%)인데, 2004년도 생산량은 642만 캐럿, 판매액은 6.3억불
 - ※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 : 보츠와나(1위), 러시아(2위), 남아공(3위)
- 앙골라의 다이아몬드 산업은 비원유산업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95%)하고 있으며, 비원유부문 GDP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산업

<앙골라 산업별 GDP 기여도>



자료 : African Economic Outlook 2005-2006, OECD

□ 원유산업

- 앙골라 전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산업은 내전 종식이후 본격적인 유전개발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

- 2004년 앙골라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약 1백만 배럴 수준으로, 연간생산량은 약 3.6억 배럴 수준이며 금액기준으로는 130억불 규모(원유 매장량은 약 88억 배럴로 추정)

※ 2005년 앙골라 일일 원유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국제경제기구 및 자원관련 기관들은 120만 배럴 내외로 추정

- 고유가 및 새로운 유전 개발에 따라, 앙골라의 원유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IMF, EIU 등 경제예측 기관들은 2007년~2009년에는 앙골라의 일일 원유생산량이 현재의 2배 수준인 2백만 배럴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다이아몬드 산업

- 앙골라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기준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약 642만 캐럿으로 추정됨. (생산량 기준 세계 4위)

- 앙골라 정부는 다이아몬드산업 육성을 위해 국영 다이아몬드 기업인 ENDIAMA(Empresa Nacional de Diamantes de Angola)를 통해 다이아몬드산업 개발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 ENDIAMA는 앙골라의 다이아몬드 생산량 확대를 위해 앙골라 전역에 걸친 지질조사를 통해 새로운 광산을 개발할 계획

※ 현재까지 지질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앙골라 전역의 40%에도 미치지 못함.

- 외국기업과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에 법적문제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던, **ENDIAMA와 De Beers 간의 Joint Venture 협정**이 2005. 5월에 체결됨.

※ 현재 앙골라에는 약 300여개의 다이아몬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 11%인 34개 기업이 외국계 기업

- 앙골라 정부는 지속적인 광산개발과 구조개혁을 통해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2006년까지 1,000만캐럿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 이렇게 될 경우, 앙골라는 남아공을 제치고 보츠와나,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다이아몬드 생산대국으로 부상할 전망

□ 농수산업

- 원유에 이어 앙골라의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은 27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농지 등 대부분의 산업기반이 황폐화되었음.
- 현재 경작면적은 전체 경작가능 면적의 2%에 불과하며, 생산량은 앙골라 전체 GDP의 8%인 16억불 규모
- 내전 기간동안 국외로 추방되었던 소규모 경작농민들이 돌아오면서, 농업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농업생산량 증가로 인해 식량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앙골라 농업의 주요 생산품인 커피 생산량도 증가하여 2006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5천톤에 이를 전망
- 현재 세계은행에서 앙골라의 농업기반 복구를 위해 약 5백만불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농업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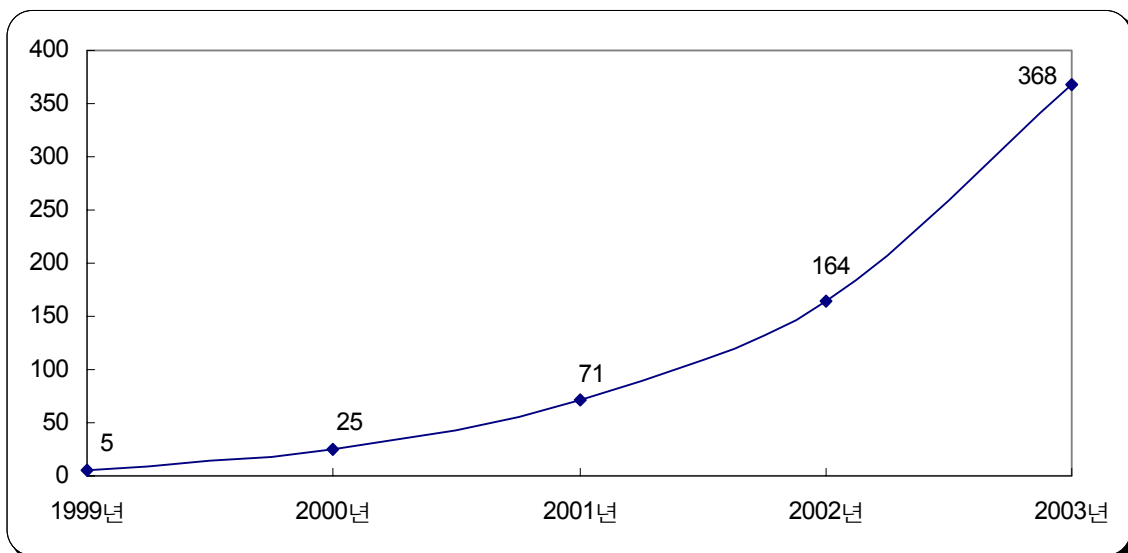
- 앙골라 어장은 서부아프리카에서 비교적 개방되지 않은 지역으로 전 해역에 걸쳐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성이 높음.
- 앙골라의 어획량은 2000년 기준(가장 최근 공식통계), 23만톤 수준이며,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연간 어획량이 45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업

- 전후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앙골라 건설업의 호황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
- 1999년부터 앙골라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10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앙골라 건설업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Kwanza)



자료 : Country Report No.05/125, IMF

- 앙골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내전 기간동안 파괴된 사회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므로 향후 건설수요는 막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앙골라 건설시장에는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포르투갈 및 브라질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음.
- 이 외에 최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앙골라 건설시장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인접국인 남아공 건설기업들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관행과 제도를 잘 알고 있어 시장진출에 유리
- 우리기업으로는 공간(주), 남광토건 등 총 5개 업체가 지금까지 2.6억불의 공사를 수주(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 제조업

- 앙골라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대부분 붕괴되어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앙골라의 제조업 생산량은 7.8억불로 앙골라 GDP의 4%에 불과
- 제조업 구조는 생필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 위주
- 주요 경공업 생산품은 밀가루, 빵, 소금, 맥주 등
- 원유산업 발전에 따라, 석유정제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주요 생산품은 가솔린, 디젤, 제트 연료 등
- 최근 건설업 호황에 따라 시멘트 생산량이 급증
- 2003년 기준 앙골라의 시멘트 생산량은 501천 Mt으로 2002년 (313천 Mt)에 비해 60% 이상 급증

다. 주요자원 현황

□ 원유 : Sub-Saharan Africa 제2의 산유국

- 앙골라는 나이지리아에 이은 Sub-Saharan Africa 제2의 산유국으로서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약 88억 배럴

※ 나이지리아의 원유매장량은 2004년 기준 353억불(자료원 : BP)

- 앙골라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88억불로 나이지리아의 25% 수준이나, 최근 심해 원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원유 매장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

※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앙골라의 신규 유전개발에 따라 2010년에는 원유매장량 105억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앙골라 정부는 2004년~2008년 동안 원유부문에 약 300억불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일일 원유생산량 : 약 120만 배럴

- 2004년 기준 앙골라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약 100만 배럴 수준이었으며, 2005년에는 약 120만 배럴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

※ 2005년 일일 산유량 추정치 : EIU(120만배럴), BMI(123만배럴), IMF(117만배럴)

- 현재 심해저 유전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어 늦어도 2010년 경에는 일일 원유생산량이 200만 배럴까지 확대될 전망

<앙골라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추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장량(억b)	88	88	88	93	98	100	102	105
생산량(천b/d)	885	991	1,230	1,450	1,650	1,800	1,950	2,000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광구별 원유생산 현황

- 앙골라 유전은 35개의 광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광구는 7개

<앙골라 원유생산 현황>

(단위 : U\$천배럴/일)

광 구	형 태	생산개시년도	생산량(2004년)	개발년도
Cabina	Shallow Water	1973	393	NA
FS-FST	On-shore	NA	13	NA
Block 2	Shallow Water	NA	39	NA
Block 3	Deep Water	NA	120	NA
Block 14	Deep Water	2000	61	1997
Block 15	Ultra-deep Water	2003	134	1998
Block 17	Ultra-deep Water	2002	235	1997

자료 : Upstream, 2004

○ 심해저 유전개발 현황

- 현재 앙골라에는 **Chevron, ExxonMobil, BP, Total** 등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들이 심해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특히, ExxonMobil은 심해유전 개발을 위해 향후 약 170억 불을 투자할 예정

<앙골라 심해저 유전개발 현황>

유 전	광구	투 자 기 업	투자액 (US\$백만)	원유매장량 (백만배럴)	생산개시일 (예상)
Cravo, Lirio, Rosa	17	Total, ExxonMobil, BP, Statoil, Norsk Hydro	1,800	749	2006
Dalia	17	Total, ExxonMobil, BP, Statoil, Norsk Hydro	3,249	1,250	2006
Gabela	14	Chevron Texaco, Agip, Sonangol, Total, Petrogal	1,500	500	2010
Greater Plutonio	18	BP, Shell	3,014	800	2007
Kizomba B	15	Exxonmobil, BP, Agip, Statoil	3,485	1,000	2006
Kizomba C	15	Exxonmobil, BP, Agip, Statoil	3,895	984	2008
Landan, Tombua	14	ChevronTexaco, Agip, Sonangol, Total, Petrogal	1,630	361	2007
Perpetua	17	Total, ExxonMobil, BP, Statoil, Norsk Hydro	2,229	600	2009
The Planets	31	BP, Exxonmobil, Sonangol, Statoil, Marathon, Total	3,000	800	2011
Unnamed	32	Total, Marathon, Petrogal Sonangol, Exxonmobil	2,200	600	2013
Unnamed	15	ExxonMobil, BP, Agip, Statoil	3,000	800	2010

자료 : Wood Mackenzie, Deutch Bank

□ 다이아몬드 : 생산량 세계 4위

- 다이아몬드는 1912년 앙골라 북부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원유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앙골라 최대의 수출 품목이었음.
- 앙골라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는 품질수준이 매우 높아 공업용보다는 보석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앙골라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2004년 기준 642만 캐럿으로 생산량 기준 세계 4위
- 앙골라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내전으로 인해 생산량의 변동이 심했으나, 1992년 이후 소규모 채굴업 및 외국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

<앙골라 다이아몬드 생산량 추이>

(단위 : 천캐럿, U\$백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생산량	4,170	5,126	4,999	5,032	6,423
공식부문	2,749	3,800	4,100	3,800	5,800
비공식부문	1,421	1,326	899	1,232	623
매출액	729	688	684	748	631
공식부문	380	427	441	540	500
비공식부문	349	261	243	208	131

자료 : EIU

□ 기타 자원

- 천연가스 : 현재까지 확인 매장량 900억 m³
 - 앙골라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900억 m³이며, 2005년 생산량은 15억 m³로 추정되는데, 2010년경에는 연간 생산량이 120억 m³까지 확대될 전망
- 광물자원 : 종류는 많으나 매장량은 미미
 - 앙골라는 다이아몬드 외에도 철광석, 주석, 금, 망간, 구리, 크롬 등 약 18종의 다양한 광물자원이 있으나, 매장량은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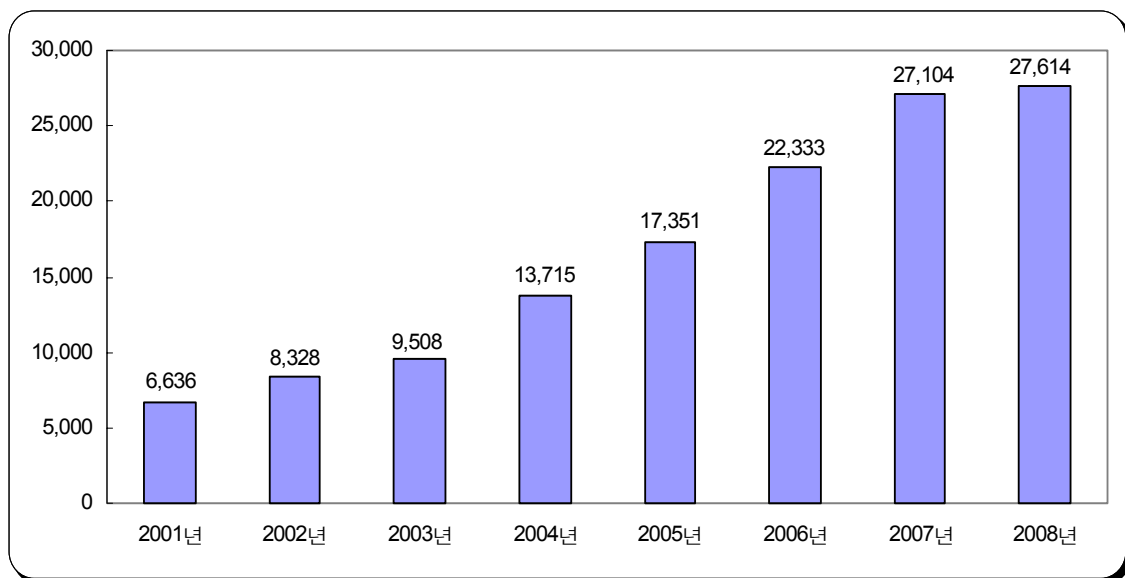
라. 교역 동향

□ 수출동향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앙골라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의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규모가 급격히 증가
 - 2004년 기준 앙골라의 총 수출액은 137억불로 전년 대비 44% 급증했는데, 이중 원유수출액이 126억불에 달함.
 - 고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7년까지 앙골라 수출액은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앙골라 수출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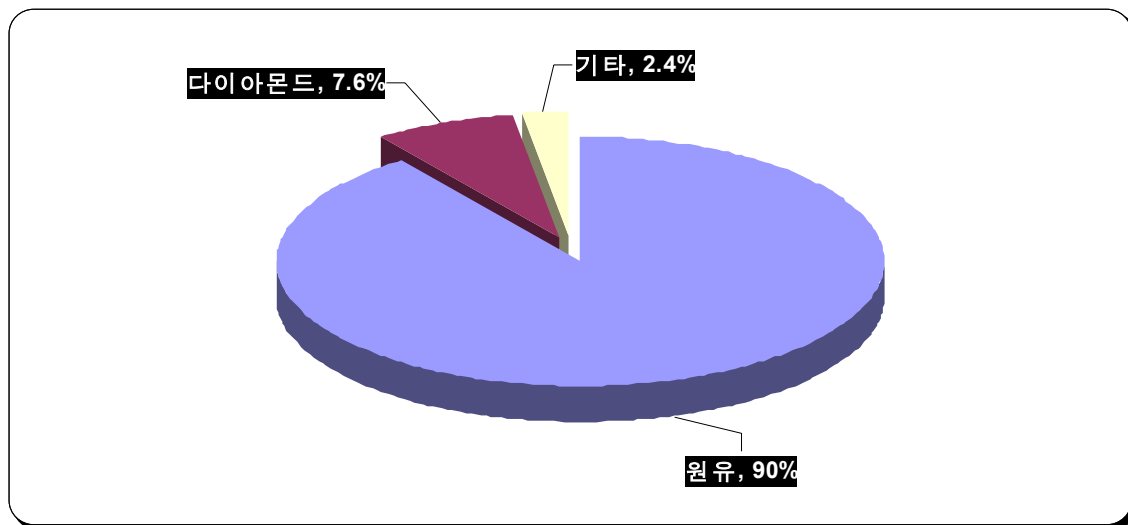
(단위 : U\$백만)



자료 : Country Report No.05/125, IMF

- 원유에 이은 제2의 수출품은 다이아몬드(수출 점유율 7.6%)이며, 이밖에 가스, 커피, 목재, 면화, 수산물 등도 수출되고 있으나, 비중은 2.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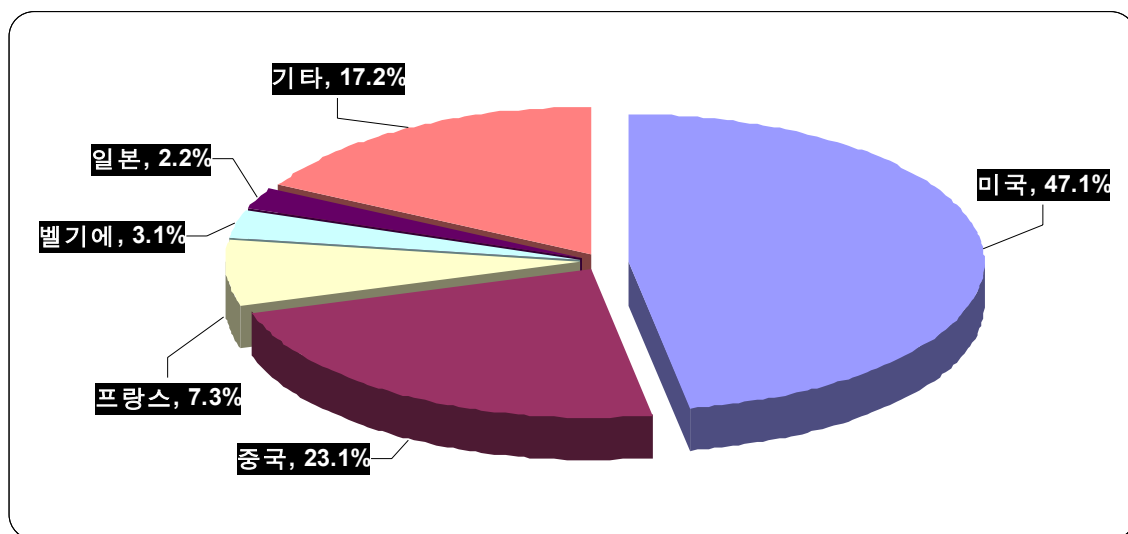
<앙골라 수출상품 구조>



자료 : Country Report No.05/125, IMF, 2003년 수입통계

- 앙골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총 수출의 40% 이상 점유
 - 對美 수출품목은 대부분 원유이며, 1992년 이후 앙골라 전체 원유수출액의 약 60%가 미국으로 수출
 -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이 앙골라의 제2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앙골라 주요 수출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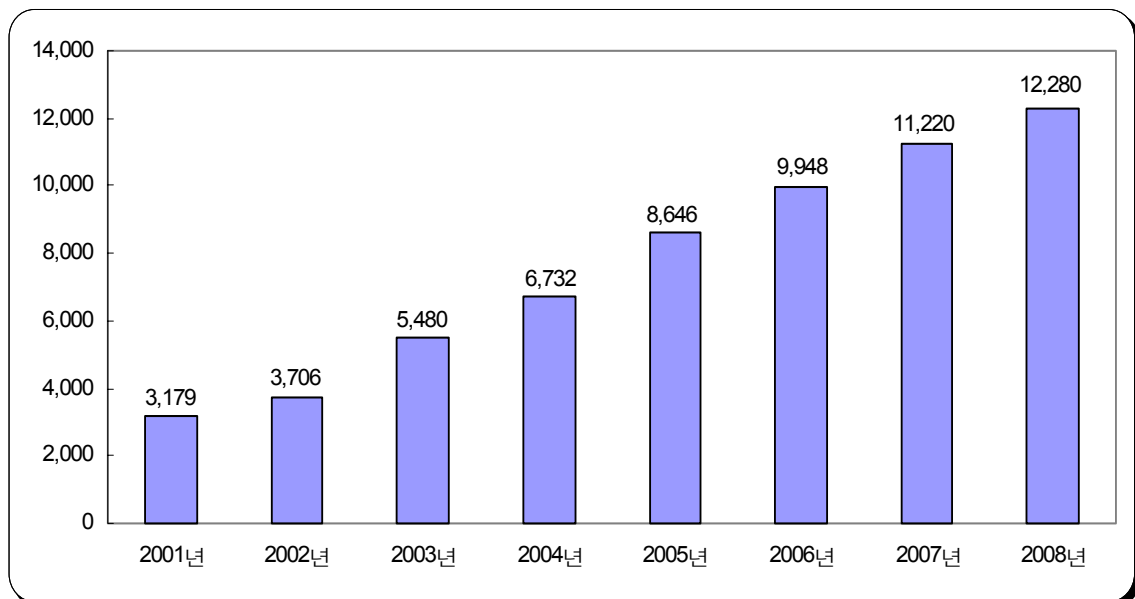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3년 수입통계

□ 수입동향

- 내전종식 이후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수입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4년 기준 앙골라의 총 수입액은 67억불로 전년대비 약 23% 증가
 - 이러한 수입시장 증가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2008년에는 수입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

<앙골라 수입동향 및 전망>

(단위 : U\$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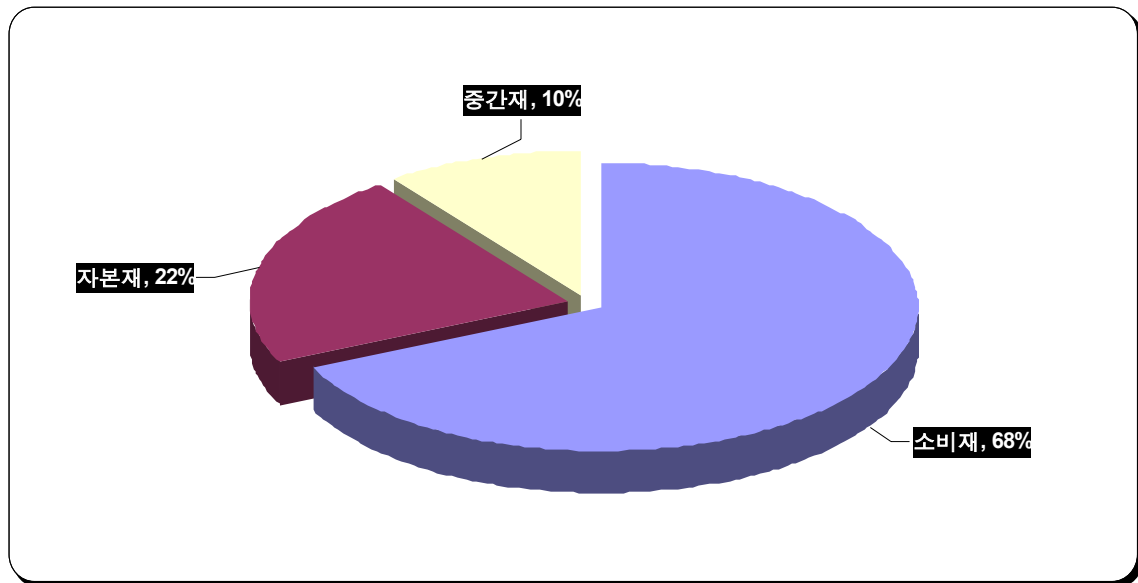
자료 : Country Report No.05/125, IMF

- 앙골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생필품이 부족하여 소비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앙골라 전체 수입액 중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육박

- 앙골라의 주요산업인 원유 및 다이아몬드 산업의 생산량 확대, 전후 복구사업 진행에 따라 자본재 수입이 꾸준히 증가

※ 자본재 수입액 : 8.4억불('00), 7억불('01), 11억불('02), 14억불('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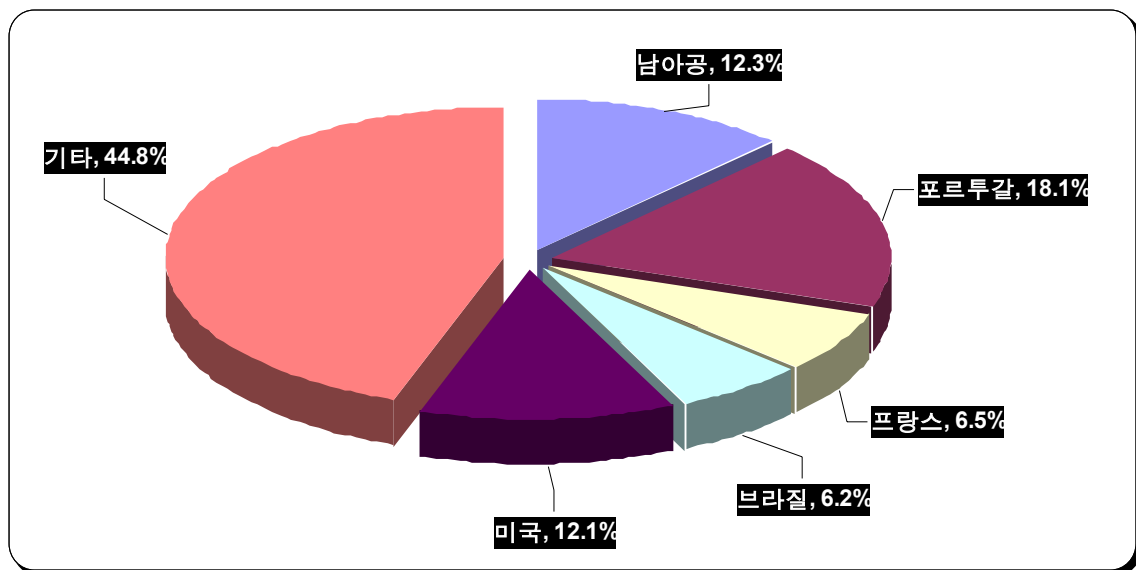
<앙골라 수입구조>



자료 : Country Report No.05/125, IMF, 2003년 수입통계

- 앙골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료물자, 의료장비, 섬유, 광물제품, 기계류, 전자 및 기계제품, 금속류, 식료품 등임.
- 앙골라 제1의 수입대상국은 과거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포르투갈로 전체 수입액의 약 20%를 점유
 - 포르투갈에 이어 남아공, 미국, 프랑스, 브라질 순
 - 포르투갈과 브라질이 주요 수입국인 이유는 언어적/문화적 유사성 때문이며, 미국과 프랑스는 원유채굴 시설, 남아공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

<앙골라 주요 수입대상국>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3년 수입통계

마.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아프리카 제2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국으로 부상

- 2004년 앙골라의 FDI 유치액은 20.5억불로 나이지리아(21.3억불)에 이은 아프리카 제2의 FDI 유입국

<아프리카 주요 FDI 유입국>

(단위 : US백만)

국 가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나이지리아	1,005	930	1,104	2,040	2,171	2,127
앙골라	2,471	879	2,146	1,672	3,505	2,048
남아공	1,502	888	6,789	757	720	585
모로코	850	215	2,825	481	2,314	853
알제리	507	438	1,196	1,065	634	882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UNCTAD

- 이처럼 앙골라에 대한 투자가 많은 이유는 원유, 다이아몬드 등 자원개발 수요가 많고 전후 재건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
- 부문별로는 원유부문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2004년 앙골라 FDI 유치액의 93%가 원유부문에 집중

3. 성장잠재력 평가

가. 기회요인

□ 경이적인 경제성장세 : 2005년 이후 두 자리대의 경제성장

- 앙골라는 2002년 내전종료 이후 본격적인 원유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
- 2005년 앙골라의 경제성장률은 15.7%로 추정되며, IMF에 따르면 2007년까지 20%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이는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급증, 앙골라 정부의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전후복구 수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

□ 경제 개혁 추진

- 新외국인투자법 시행(2004년)
- 앙골라 정부는 내외국인 동일대우, 투자 및 과실송금 절차 간소화, 세금특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투자촉진 법안을 마련

- 동 법안은 FDI유치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무역장벽 제거

- 20002~2004년 동안 평균 17%에 이르던 수입관세를 14%까지 인하하였으며, 수출관세도 대부분 폐지
-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더불어 관세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방안도 검토 중

□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전후복구

- 앙골라는 27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기반시설이 파괴
 - 현재 앙골라 도로의 80%가 심하게 파괴된 상태이며, 철도운행도 극히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음.
 - 전력공급은 수도인 루안다 등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조차 매우 불안정한 상황
 - 식수원도 매우 부족한데, 현재 앙골라 인구의 1/3만이 안전한 식수원을 보유
- 앙골라 정부는 경제성장 기반확충을 위해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후 복구 수요 다대
 - 특히, 앙골라는 오일머니 급증으로 인해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전후재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여건이 안정적

나. 제약요인

□ 앙골라 경제의 높은 원유 의존도

- 앙골라는 원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경제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함.
- 앙골라는 국내총생산의 54%, 정부 재정수입의 78%를 원유 부문에 의존
- 앙골라 경제는 다양한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원유산업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와 같은 외생변수에 취약

□ 국민 대다수의 절대빈곤 및 부족한 인적자원

- 부의 편중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황에 놓여 있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현재 앙골라 인구의 68%가 하루 1.7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을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황
-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한 부족한 인적자원
-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앙골라의 인적자원 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177개 조사대상 국가 중 166위로 매우 낮은 수준

□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 및 부패만연

- 앙골라 정부의 정책일관성 및 투명성 부족, 부패만연으로 인해 경제 개혁의 한계를 노출

- 현재 앙골라 정부에 대해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구조개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예산 등에 있어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앙골라의 투명성 순위가 145개국 중 133위일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음.

4. 한-앙골라 경제협력 확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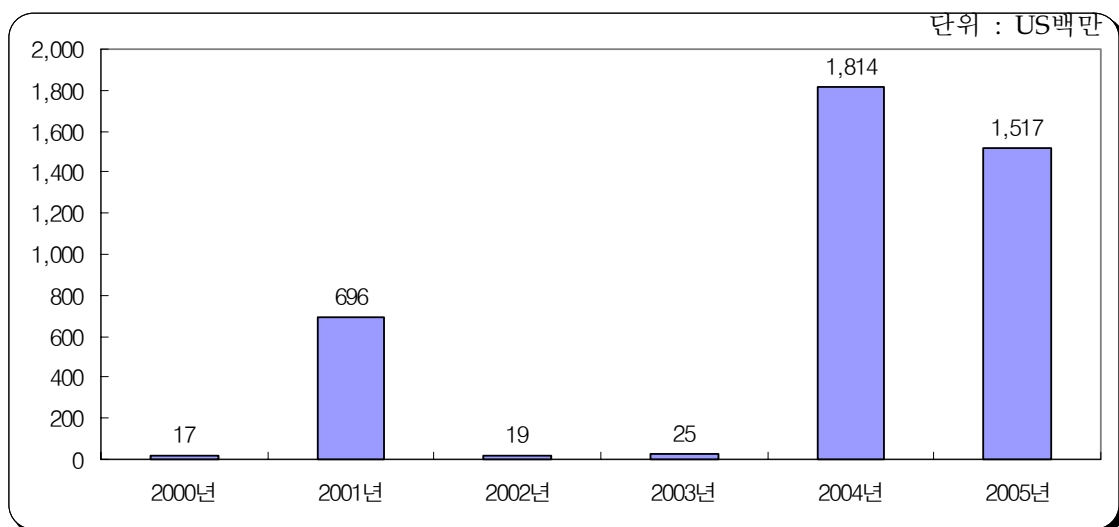
가. 한-앙골라 교역동향

□ 對앙골라 수출동향

○ 2004년 이후 수출액 급증

- 앙골라 내전 종료 이후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4년 수출액은 18.1억불로 전년대비 무려 7,229% 증가했으며, 2005년에도 15.1억불로 높은 수준을 유지

<對앙골라 수출액 추이>



자료 : KOTIS

- 우리나라의 對앙골라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로 전체 수출액의 95%를 점유
 - 2005년 對앙골라 전체 수출액(15.1억불) 중 선박 및 해양구조물 수출액은 14.5억불
 - 우리나라의 對앙골라 수출품목은 주로 원유시추 장비들로써, 일반상품 수출액은 매우 미미하나 앙골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향후 꾸준히 확대될 전망

<對앙골라 10대 수출품목>

(2005년, MTI 4단위 기준)

순위	품목명	수출액(US\$백만)	증가율(%)
1	선박	757	-4.0
2	해양구조물	691	-30.2
3	승용차	15	77.2
4	화물자동차	7	39.9
5	철강 및 비합금강 형강	5	14,412.7
6	알루미늄 구조물 및 용기	4	940.9
7	전선	3	2004년 수출액 전무
8	건축용 목제품	3	2004년 수출액 전무
9	합성수지	3	108.6
10	기타요업제품	3	2004년 수출액 전무

자료 : KOTIS

□ 對앙골라 수입동향

- 2004년에는 對앙골라 수입액(1.37억불)의 99.4%가 원유였으나, 2005년에는 원유수입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수입품목의 변동이 심함.

- 2005년도 주요 수입품목은 주철, 알루미늄스크랩, 고철 등 광물자원임.

나. 한-앙골라 투자동향

□ 우리나라의 對앙골라 투자규모 미미

- 2006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앙골라 투자액은 약 700만 불(신고기준) 정도에 불과

<우리나라의 연도별 對남아공 투자동향>

(단위 : U\$천)

구 분	신 고		투 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1	1	105	-	-
1992	-	-	1	105
1997	1	20	1	20
2005	1	7,000	1	6,211
2006	-	-	-	-
합 계	3	7,125	3	6,336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 KOTRA 현지조사 결과, 현재 앙골라에는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7개 업체가 진출해 있음.

- 앙골라 진출기업 :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인터볼고, 남광토건, LEEALFA, 공간건축

※ 참고 : 앙골라 내 한국교민은 40여명으로 가발공장, 사진관, 무역업 등에 종사

다. 경제협력 유망분야 및 확대방안

□ 원유분야 :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

- 앙골라는 나이지리아에 이은 Sub-Saharan Africa 제2의 산유국으로서 현재 일일 원유생산량은 약 120만 배럴 수준
 - 최근 심해저 유전개발이 활기를 띄면서 2007년~2009년경에는 일일 산유량이 200만 배럴까지 확대될 전망
 - 현재 앙골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대부분 경질유이나, Dalia 및 Kuito 유전에서 중질유도 생산되고 있는 등 원유형태도 다양
-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원유수입 의존도는 81.8%로 안정적인 원유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필요
 - 중동지역에 대한 지나친 원유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앙골라와 같은 신흥 산유국들과의 적극적인 자원외교가 필요
 -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공급원으로서의 앙골라의 가치를 인식, 차관제공과 같은 경제지원을 통해 자국 석유 메이저들을 앙골라에 진출시키고 있음.

※ 중국은 2004년에 앙골라에 20억불의 차관을 제공하고 원금은 원유로 상환 받고 있을 정도로 앙골라 원유확보에 적극적

- 정부 차원의 對앙골라 자원 협력단 파견 필요
 - 세계 각국이 안정적인 원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오늘날의 냉엄한 현실을 감안하면, 앙골라와 같은 신흥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이 절실한 상황

- 현재 앙골라에는 Chevron, ExxonMobil, BP 등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해 있어, 우리기업 단독으로 앙골라 원유개발 부문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산자부, 석유공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차원의 사절단을 앙골라에 파견, 양국간 자원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사회 인프라 분야 : 전후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

-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었음.
- 앙골라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파괴된 사회 인프라 복구가 우선이라고 판단, 현재 전후복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 제조업 설비도 내전기간 중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신발, 의류, 비누 등 생필품 생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으로서는 생필품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수출 및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소규모 투자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앙골라 정부의 사회 인프라 복구계획에 따라, 현재 앙골라 내에서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도 우리 기업에게 기회
-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건축기업의 앙골라 내 건설부문 수주실적은 2.6억불 규모임.

- 앙골라에서 건설수주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공기 내 시공으로 인해 앙골라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여건은 좋은 편

○ Sonangol : 앙골라 사회 인프라 확충의 Key Player

- Sonangol(Sociedade Nacional de Combustiveis ds Angola)은 1976년에 설립된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 Sonangol은 독점적인 원유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어,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

※ 앙골라 석유법에 따라 앙골라 내 원유개발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반드시 Sonangol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야함.

- Sonangol은 원유사업 외에도 제조업, 군수업, 물류, 통신, 은행 분야에 50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앙골라 내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Sonangol에서 발주
- 따라서, 앙골라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對Sonangol 로비 및 협력기반 구축이 필수적

□ 상품분야 : 시장 선점전략 필요

- 현재 앙골라는 2,000불 미만의 1인당 소득수준, 높은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구매력이 매우 낮아, 상품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낮은 편
- 또한, 앙골라 정부는 그동안 적자재정으로 인해 군수품, 원유 시추장비 외에는 상품수입을 억제해 왔으므로 상품시장이 더욱 발달하지 못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재정도 흑자로 돌아서, 향후 상품 수입 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

○ 상품시장 발달 초기단계에 시장선점 필요

- 현재 앙골라는 상품시장 발달 초기단계이므로 꾸준히 우리 상품을 앙골라 시장에 노출시킴으로서, 앙골라 소비자들에게 대한 우리상품의 인지도 제고 필요
- 따라서, 현재로서는 앙골라의 시장상황을 감안, 보급형 제품판매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형성된 앙골라 소비자들의 우리 상품에 대한 로열티를 바탕으로 향후 앙골라 소비시장 발달 단계에 따라 중고가 제품 위주로 제품 포지셔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쟁점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 산업리포트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작 성 자

- ◆ 고일훈 과장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 ◆ 김준규 과장 (해외조사팀)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6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